

렘넌트가 품은 성전 언약

다니엘 9:11-19, 사도행전 20:25-35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재앙과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 시대마다 언약을 놓쳐서 재앙이 임했는데, 그 결과로 성소가 황폐하게 되었다.
2. 하나님은 성전과 언약을 마음에 품은 렘넌트를 통해 성전을 회복시키셨다.
 - (1)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준비하시고 복음을 품게 하셨다.
 - (2) 복음을 가진 렘넌트 소수가 일어나서 포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 (3) 이들이 회당을 세우고 언약을 전달했는데, 출바벨론의 기적이 일어났다.
 - (4) 언약이 성취되어,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된 것이다.

결론 :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킴으로써, 후대가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자.

“주님,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가슴 속 깊이 던져주시며, 각인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받는 자와 주는 자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특히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제대로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퓨리탄(puritan,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피하여 신대륙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바로 예배당을 지었다. 그리고 교육관을 지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다. 그리고 나서 세탁을 하고 상륙해서 생활을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개척을 위해서 교역자를 파송하면, 먼저 교역자 사택부터 지었다. 거기에서 타락방, 미션 홈처럼 기도하며 지내다가, 믿음의 신자가 생기고 그 집이 용납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교육관을 짓는다고 한다. 그리고 난 후에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본당을 짓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당을 보면, 몇 년 짜리를 짓는 게 아니라 길이 남을 건물로 짓는다. 그 순서가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가 헌당을 위한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다. 다음 주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 후로는 다시 성경 강해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난주 우리가 받은 사사기의 말씀대로 죄와 형벌, 회개와 구원의 반복이었다. 구원받아놓고도 조금만 편해지고 형통해지면 이내 타락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는다. 징계의 매를 때리면 그때에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한다.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공훈과 자비가 많으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신다. 그러면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또 타락한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지만, 사사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명료하게 보게 된다. 이게 반복된다. 이 반복의 흐름을 끊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언약 전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가슴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것들로 뿌리내려져 있는 곳에 복음이 그저 스쳐 지나간 정도로 받은 것이다. 후대가 복음을 놓치면 교회는 다음 세대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후대가 교회에서 복음의 언약을 전달받지 못하면, 교회는 종교화되고 권력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대에 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품은 성전에 대한 한을 목상하면서, 교회와 성전에 대한 바른 중심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성전을 통해서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이다. 우리 후대가 한국과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한다. 헌당을 놓고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다.

1. 재앙이 임하고 성소가 황폐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큰 재앙이 임했고, 하나님의 성소는 황폐해졌다고 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해야 할 내용이다.

- (1) 자세히 살펴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 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 열네 명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몇 명 없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언약궤와 성막이 방치되어 버린 상태였다. 그러는 중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도 소원하니깐,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지만 왕을 주셨다. 이게 사울 임금이다. 그러나 사울은 임금이 되었지만, 자기 권세를 앞세우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으며 영화를 좋아했으면서도, 성막에는 관심이 없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비바람을 막고 있는지

는 관심이 없었다.

② 이때 일어난 인물이, 언약궤를 마음에 품고 주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이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네 손으로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 하신 말씀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솔로몬부터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몇 대가 지나면서 왕들이 복음 대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데 바빴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방치되어 버렸다. 어느 정도였나 하면, 나중에 히스기야나 요시아 같은 임금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해 보니까 성전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수리하는 데만 엄청난 국력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퇴락해 버린 것이다.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려고 와서 열어 보니까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한 상자 안에서 신명기 법전이 나왔다. 이 말씀을 읽다가 요시아 왕이 땅을 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는 이것을 떠나 여기까지 왔구나.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회개했던 것이다.

③ 그나마 남조에는 이런 일이라도 있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분열된 북쪽 왕국, 열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도 없었다. 북쪽 왕국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꼴을 볼 수 없으니, 벨벳에 신당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제사를 하게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북조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 계속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꾸짖을 수밖에 없도록, 타락의 길을 계속 걸었다. 이러한 사이에 여호와의 제단은 황폐해져 버렸다. 왕상18장에서 엘리야가 한 일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 것이었다. 이렇게 될 때까지 계속 무너져 있었다.

④ 결국 북 이스라엘은 앗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폐망하고 흐트러졌다. 뿔뿔이 곳곳으로 흩어졌다. 북조의 수도 사마리아는 결국 유대인이 통과하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다. 흩어져서 자기 전통과 율법,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과 통혼하여 이방인화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멸망한다. 그러면서 이름답게 지었던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었다. 이것이 지금 본문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회상하는 시대의 상황이었다.

(2) 도대체 하나님의 제단이 왜 무너졌나?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직접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왜 이렇게 황폐해져 버렸는가? 이것을 놓고 다니엘이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답이 왔는데,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쳐 버렸기 때문이었다. 언약을 놓쳐 버렸기 때문이었다.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리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결과로, 성전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들에게 실제로 임해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시기 바란다. 복음과 전도의 사명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는 성전은 아무리 화려하고 견고하게 지어져도, 결국은 건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가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고 전달되느냐 하는 것에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니까, 후대들이 세대가 지날수록 언약을 망각해 버리게 되었다.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재앙을 막을 길이 없게 된 것이다.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품고, 그것이 깊이 뿌리내리도록, 체험하고 누리도록, 제대로 전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말했다. “불은 타야 존재하고,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이 언약의 전달이 없으면 교회는 끝난 것이다. 통합 측 교단 총회장이 된 분이 내 후배인데,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말했다. 통합 교단 교회의 50%가 주일학교가 없고, 70%가 종교등부가 없다고 했다.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자고 슬로건을 걸었다. 한국교회는 교권, 권력에 집착하고 세속에 탐닉하다가, 교회가 정말 해야 할 것, 정말 누리고 실행해야 할 것을 놓쳐 버리고 있다. 잘 살게 된 것이 축복이지만, 교회사를 보니까 그것이 저주가 되었다. 중세 천 년은 어둠의 시대였다.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던 때였다. 황제도 왕도 교황이 마음대로 할 때였다. 그러나 이때 교회는 가장 썩었고 타락했다. 어둠의 시대였다. 인류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2. 성전과 언약을 마음에 품은 렘넌트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었다.

이 재앙과 저주를 막으면서 구원의 반열에 서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를 앞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말할 것은 성전이 언제 회복되는가 하는 것이다. 성전과 언약을 마음에 품은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 (1) 렘넌트가 무슨 말인가? 구약의 남은 자, 흠어진 자, 믿음의 후대, 마지막으로 남은 자라는 용어다. 이것이 다 영어로 렘넌트(Remnant)라고 되어 있다. 기독교에는 렘넌트 사상이 계속 흐르고 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 아닌가. 오늘 이 기적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한다.
- (2) 하나님은 언약과 성전을 마음에 품은 렘넌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완벽한지 모른다. 언약이 점점 상실되어가는 때에, 하나님은 이미 복음과 전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 사6:13에, 언약을 가진 이사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루터기라는 해답을 주셨다. 거룩한 씨, 남은 자가 일어나서 복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 이사가 7:14의 말씀대로, 복음을 회복할 램네프트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고 계셨다. 이 램네프트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 램네프트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나라를 망하게도 하셨다. 그 망한 곳에서 램네프트가 일어나게 하셨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한 그 자리,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셔서, 복음운동을 전 세계에 회복시키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 하나님은 시대의 멸망과 상관없이, 시대의 부흥과 상관없이,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고 확산되고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주님의 관심도 마16:13-20이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잘못 대답하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관심이다. 이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셨다. 그제 루터였고 다윗이었다. 한 사람이라도 괜찮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시고 시대를 살리셨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램네프트였다.

② 포로되어간 현장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으로 현장을 변화시킨 인물이 150년 만에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 공무원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나라를 살렸다. 모르드개와 에스더는 궁궐 밖에 있던 포로민이었지만 결국 왕궁과 민족, 나라를 살리는 인물이 되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사람은 현장에서 유다 자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는데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느헤미야는 총독, 에스라는 학사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고 복음으로 승리한 인물들이 되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음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무너진 성전을 두고 다니엘이 마음아파하며 기도한 내용이 다니엘 9장이다. 이번 주간에 단9장을 깊이 묵상하며 읽어 보라. 언약을 놓쳐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오고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다니엘이 한으로 완전히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다. 조상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성소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단 9:17에 보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와 우리 램네프트에게 회복되어야 한다. 학계 같은 사람은,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사는데 성전은 황폐해져 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주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사자후를 내뿜었다.

③ 이렇게 성전을 품고 한을 품은 램네프트들이 포로된 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예배하면서 후대에 언약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비파를 나무에 걸어놓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성전이 허물어졌다면 이제 완전히 끝난 것인가?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나. 이 복음, 이 언약을 놓쳐서 우리가 망했는데, 이것을 후대에 가르치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도를 가르치고, 글도 배우고, 잔치도 하고, 춤도 추고, 회기도 하게 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에클레시아(εκκλησία), 곧 교회가 되었다. 에클레시아에는 그래서 공회당, 새마을회관 같은 이미지가 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한 곳에서만 모이면 세계를 살릴 수 없으니까, 성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제도를 세우신 것이기도 하다.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전달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된 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예배하면서 후대에 언약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3) 이렇게 후대를 살리니까, 마침내 말씀이 성취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 귀환한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스3장에는 이것이 감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통곡했고, 젊은이들은 새롭게 성전을 짓게 된 것을 보면서 기뻐서 찬양했다.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세계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다. 우리는 회복의 꿈을 꾸어야 할 줄 믿는다. 후대에 우리가 이것을 전달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토마스 목사를 파송했던 웨일즈 지방의 교회에 가 보니까,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비가 새고,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우리가 돈을 내서라도 수리하자 해서, 몇몇 교회가 힘을 합쳐서 수리를 했다. 비는 새지 않지만, 지금 이 건물이 언제 어디로 팔려갈지 모른다. 세계 교회가 허물어져가고 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언약을 분명히 하시기 바란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문제는 끝났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싸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할 말이 이것 뿐이다. 다른 말은 할 말이 없다. 정신병자를 만나서 사역해 보라. 다른 할 말이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외쳐라.” 이 말 외에는 없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리는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해 우리는 후대에 언약을 전달하자고 메시지를 붙잡았다. 후대에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남은 2014년 동안, 우리가 반드시 후대에 성전과 교회에 대한 언약을 전달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후대에 보여주게 되기를 바란다. 유지길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는데, 복음소식을 비전스쿨 램네프트들이 너무 정확하게 암송해서 놀랐다고 한다. 이 복음이 유튜브를 타고 전 세계를 돌고 있다. 나는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가슴에 무엇이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가? 무엇이 여러분 가슴에 깊이 있는가? 왜 다른 주장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는가? 두 가지 기도제목을 붙잡고 실천하기를 원한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성전에서 램네프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전도를 체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성전은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1)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는 램네프트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고행이 되도록 하자. 그들의 가슴에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자. 다른 것이 다 없어도 된다. 그러나 가슴에 복음이 없으면 자살할 수밖에 없고 우울증 걸릴 수밖에 없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을 각인시키고 체험하게 만들어야 한다. 시대에 밀려오는 재앙을 막고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만들어가려면, 우리 속에 요셉에게 심겨졌던 언약, 다윗에게 심겨졌던 복음이 심겨져야 한다. 한 사람이면 된다. 성경에는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고 했다. 램5:1에 보면, 등불을 켜고 쫓아다니면서, 이 도성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 두 번째로, 성전 회복의 주역인 램네프트를 찾아내야 되겠다. 램네프트가 헌당의 주역, 교회를 지키는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꿈을 꾸고 있다. RUTC를 위해서 우리가 땅을 마련했지만, 여기에 생을 거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램네프트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 “너희가 일어나서 어른들을 살리고 부모를 살려라. 뛰어난 기능과 재능을 연마하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아이들에게 하고 있다. 램네프트가 교회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도록 도와주어야 되겠다.

우리 선배 중 한 명이 말했다. “나는 어릴 때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서 놀다 보니 목사가 되었어.” 반동제일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언덕 위에 있었다고 한다. 수도가 없을 때니까 교회에 물을 길어주어야 하는데, 사모님이 혼자 물 길으러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학교 갔다오면 엄마가, ‘가서 사모님을 좀 도와드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올라가서 물을 길어드리고 장작을 땀다고 한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다고 한다. 거기에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다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나도 고등학생이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 사모님이 격려해주시고 웃어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 교회에서 밤을 새고 기도하다가 나오는데 불끄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혼나기도 하면서 교회에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램네프트들에게는 그래도 교회가 있으니 와서 마음껏 지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교육관 의자는 장의자 대신 이동식 의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음껏 분반도 하고 포럼도 하고, 거기에서 모임도 하고, 탁구도 치고 하도록, 의자를 옮길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영상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프로젝터도 좋은 것으로 바꾸면 좋겠다.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나라가, 시대가 무너져 버리게 된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 정말 언약을 전달하도록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성소를 주시고,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할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헌당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자손손 대대에 전달하여, 이 민족 살리는 교회가 되고 지역을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고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서 그 센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전도역사와 행위가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셔서, 계속 우리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민족의 정기를 살려가는 복음의 원천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